

현안과 과제

| 중국 성장정책 전환과 파급 영향

Executive Summary

□ 중국 성장정책 전환과 파급 영향

■ 중국 성장정책의 전환 배경

(투자에서 내수로 전환) 12차 5개년 계획에 따라 중국의 성장정책은 기존의 투자 및 수출 위주와 저가의 노동집약형 경제에서 민생, 혁신, 환경을 통한 질적 전환과 글로벌 균형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.

(변화배경) 정책전환의 현상적 배경에는 개혁개방 이후, 고도의 성장 정책이 가져온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과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, 구조적 배경으로는 계층 및 지역별 소득격차, 소비시장 확대,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원 및 금융구조의 불균형과 환경오염 등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■ 한국에 주는 영향

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, 중장기적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

단기적인 위협요인에는 **첫째**, 중국성장둔화에 따른 대 중국 수출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. **둘째**, 지역 간 임금의 차등적 적용으로, 주로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예상되며, **셋째**, 대량의 차이나머니 국내 유입으로 인한 통화정책의 탄력성저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 **기회요인**에서는 **첫째**, 소득증대 효과에 기인한 중국 내국인의 국내 여행 증가로 한국 관광산업이 동반 발전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. **둘째**,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 성장으로 중국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획력을 활용한 윈윈전략도 구상할 수 있다.

중·장기적 위협요인으로는 중국의 IT와 친환경산업을 결합한 신성장산업 발전은 아직까지 유럽, 미국, 일본에 비해 낮은 기술경쟁력을 보이는 한국에게 국제시장에서 잠재적 위협대상이 될 수 있다. 반면에 **기회요인**으로 중국의 내수확대정책에 따른 중국의 對한국 소비품 및 중간재 수요 확대로 수출증대를 예상할 수 있으며, 친환경 산업정책과 복지관련 서비스업종의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.

■ 대응방안

이번 중국의 내수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 전환에 우리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. **첫째**, 중간재 위주의 대중 수출구조를 소비재로 확대해야 한다. **둘째**, 제조업위주의 투자항목을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신개념 콘텐츠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 시도 필요하다. **셋째**, 은행의 소매금융 발전과 사회복지향상에 맞춰 현지진출 및 맞춤형 금융상품 설계 시급하다. **넷째**,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의 자체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는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.

1. 중국 성장정책의 전환

- (투자에서 내수로 전환) 12차 5개년 계획 동안 중국은 기존의 정책인 고성장 위주에서 민생, 혁신, 환경을 통한 질적 성장과 아울러 글로벌 균형을 위한 안정적인 성장 전환을 목표로 함
- 고도 성장기 : 개발초기의 공업화 목표에서 현대화, 산업화 전환을 위해 투자, 수출, 저가의 노동요소를 내세운 정책
 - 개발초기 공업화 목표로 산업불균형을 가져와 기술정체, 자본효율의 하락 초래
 - 고도 성장기로 가면서 현대화와 산업화를 위한 투자주도형 성장방식은 물가상승 등 거시불안, 소득격차 확대 및 소비시장발전 저해와 환경오염을 일으킴
 - 또한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한 단순 제조업위주의 수출주도형 산업육성으로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의 상대적 열위와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에 영향을 줌
 - 재정 및 금융시장도 오랫동안 맡아온 정부의 공업화 전략의 중재자 역할 때문에 구조적 모순이 증폭되고 있음
- 질적 성장기 : 민생안정, 기술혁신, 환경개선을 추구하여 글로벌 불균형을 안정화하는 질적 구조로 전환을 선택
 - 12차 5개년 계획부터 투자, 수출, 저가의 노동력을 앞세운 고성장 정책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
 - 주요 전환 방향은 고 성장기에 확대된 계층 및 지역 간 소득격차와 민생불안요소를 제거하려는 정책으로 전환
 - 또한 수출위주의 외연적 성장정책으로 불거진 글로벌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입 간소화와 관세인하조치를 통해 조절
 - 아울러, 환경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업 비중 확대와 전통적 제조업에서 친환경 및 첨단 혁신산업 육성으로 정책 집중

< 중국의 성장 정책 방식 >

	성장목표	성장 정책 방식	산업육성
개발 초기	공업화	- 중공업 지원을 위해 농업 집단화를 추구한 불균형 성장 정책	중공업위주
고도 성장기	현대화, 산업화	- 투자, 수출, 저가의 노동집약적 요소를 활용한 개방화 정책	제조업 위주
현재 성장기	민생, 혁신, 환경	- 내수확대를 위한 질적 성장 정책으로 지속적인 성장 견지	차세대 신 성장 동력 발굴

출처 : 본 연구원 자료 정리

2. 중국 성장정책의 전환 배경

○ (현상적 배경) 성장정책의 전환은 고도의 성장 정책이 가져온 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과 글로벌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를 내포함

- 물가 및 부동산 : 개혁 개방이후, 투자위주의 성장방식에서 나타난 물가상승 압력과 부동산 리스크가 확산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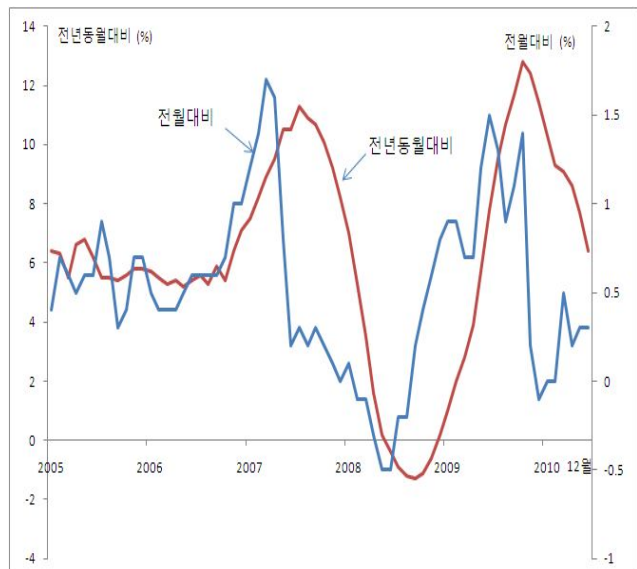
- 개혁개방시기부터 지금까지 고도의 성장정책을 위한 긴축과 확장적 거시조절 정책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패턴을 나타냄
-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08년 5.9%로 최고점을 보인 후,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-0.7%로 잠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0년부터 다시 과열조짐과 함께 3.3%로 상승함
- 부동산가격지수는 2007년부터 증가율의 등락을 나타내다가 최근 2년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규제대책으로 2010년 말 현재,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6.4%로 같은 해 4월 12.8%의 상승률에 비해 절반으로 하락함

< 중국의 물가 추이 >

(단위:%)

	소비자 물가지수	생산자 물가지수
1978	0.7	0.7
1985	9.3	8.8
1990	3.1	2.1
1995	17.1	14.8
2000	0.4	-1.5
2005	1.8	0.8
2007	4.8	3.1
2008	5.9	6.9
2009	-0.7	-5.4
2010	3.3	5.5

< 중국 70개 주요도시 부동산 가격 추이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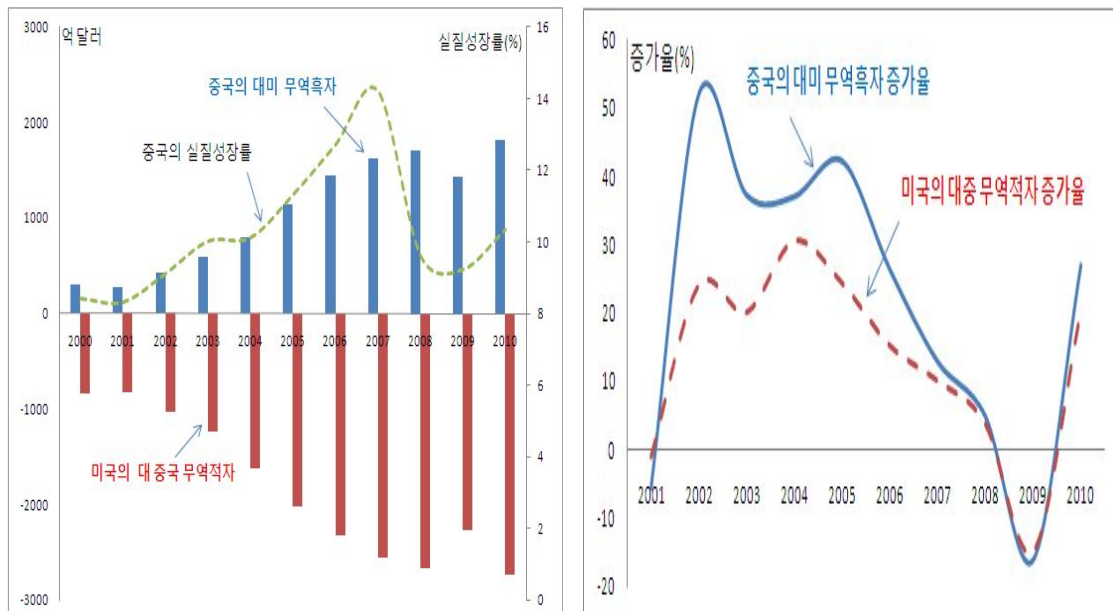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中國國家統計局; CEIC.

- 대외거래 : 수출주도형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나타난 대미 무역흑자가 증대됨에 따라 미·중간 무역마찰이 발생함

- 2010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000년에 약 5배로 증가한 반면,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가 2배 증가함
- 증가율로 보면, 최근 10년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증가율이 커질 때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증가율도 동반상승하는 현상을 나타냄
- 수입규모 측면에서 중국은 2007년부터 미국의 최대수입국이 되었고, 2010년 현재 미국의 중국으로부터 수입액은 3,600억을 상회하면서 2000년 1,000억 달러에 비해 약 3.6배 증가함
- 미·중간 무역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위안화 시스템을 2005년 7월부터 관리변동환율제로 전환했지만 고정환율제와 유사한 '크롤링 페그(crawling peg)'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은 누그러들기 어려워 보임

<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불균형 추이 >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; IMF, *World Economic Outlook* April 2011.

○ (구조적 배경) 계층 및 지역별 소득격차, 과잉 저축률, 지방재정 및 금융의 불균형과 환경오염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

- 소득격차 : 계층 간, 지역별 소득격차 문제

- 중국정부는 10차 5개년 계획시기(2001-2005)부터 농업의 산업화 추구를 통해 농촌의 소득증대 정책을 중시해왔고 이 결과 2010년 말 농민의 1인당 평균 순소득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이 도시민보다 약 3.6%p 높아짐
- 하지만 2010년 도시주민 1인당 처분가능소득은 약 19,000위안으로 농촌의 5,900위안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소득격차가 존재함
- 지역적으로도 장강삼각주(長江三角株)와 주강삼각주(珠江三角株)를 중심으로 한 동부연해지역과 동북3성과 사천성 등 비교적 낙후된 지역 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
- 소득격차의 주요원인은 1978년 개혁개방이후 차별화된 '선부론(先副論)'적 경제정책 때문에 약화된 공평한 분배 시스템 때문

< 중국의 지역별 소득수준 비교 >

(단위: 억 위안 위안)

구분	2010년				
	江蘇省 (강소성)	廣東省 (광둥성)	遼寧省 (요녕성)	四川省 (사천성)	전체
GRDP(억 위안)	27,227	45,636	18,278	16,899	397,983
1인당 GRDP(위안)	50,995 (7,700 달러)	46,990	-	20,500	29,524
도시주민의 1인당 처분가능소득(위안)	22,944	23,898	17,713	15,461	19,109
농촌주민의 1인당 처분가능소득(위안)	9,118	7,890	6,908	5,140	5,919

자료 : 2011江蘇省政府工作報告; '廣東省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十二個五年規劃綱要'; 遼寧省人民政府; 2011年四川省人民政府工作報告.

- 소비구조 : 개혁개방이후 공업화전략으로 나타난 과잉 저축 경향이 낮은 소비성향을 가져옴

- 개혁개방부터 지금까지 소비, 투자, 경상수지의 경제성장 기여율에 따라 추정할 때, 소비의 기여율은 2010년 46%로 1978년 48%와 크게 변화되지 않은 수준
- 소비기여율은 2010년 현재 미국과 독일 등 선진공업국과 비교해 30-40%p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, 투자기여율은 반대로 30%p 이상 중국이 높은 수치를 보임
- 이러한 원인은 개발초기 공업화정책으로 누적된 높은 저축 경향이 개혁개방이후 도시화와 현대화의 정책적 수요 증대로 증가하면서 소비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
- 2010년 중국 저축의 성장 기여율은 미국과 독일에 비해 각각 42%p, 31%p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음

< 주요국 주요지표의 경제성장 기여율 >

(단위 : %)

		1980	1990	2000	2010(E)
미국	투자	21	19	21	16
	소비	78.9	81	83	87
	경상수지	0.1	-1	-4	-3
	저축	19	16	18	12
중국	투자	52	36	35	49
	소비	47.9	61	63	46
	경상수지	0.1	3	2	5
	저축	49	39	37	54
독일	투자	28	26	22	17
	소비	73	71	80	78
	경상수지	-1	3	-2	5
	저축	22	25	20	23

자료 : IMF.

주 : 소비는 '100 - (투자 + 경상수지)'로 계산된 추정치.

- **재정 및 금융 : 지방정부의 편중된 재정수입원 구조와 금융 자산규모의 불균형 확대**
 - 중국통계연감에 따르면, 중국의 중앙과 지방간 재정수입 비중은 1994년 분리과세제도(分稅制)개혁이후부터 기존의 3 : 7 비율에서 5 : 4.5 비율로 비교적 균등해짐
 - 하지만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원이 전체 세수수입의 25%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토지관련 부문에 편중되어 있음¹⁾
 - 금융시장 역시, 세계적인 소매뱅킹으로 성장하고 있는 은행부문에 비해 자본시장 규모는 은행산업의 1/4수준²⁾에 불과해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함

- **산업 : 개혁개방이후 고도의 산업화 정책으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며, 차세대 혁신적인 성장 동력 부족**
 - 국제에너지기구(IEA, 2008)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1위 에너지 소비국으로 2030년까지 38억 TOE(석유환산톤)으로 세계 에너지의 20%를 차지하면서 초래되는 CO2 배출량 예상량도 세계 총배출량의 40%로 예상되며 심각성 증대
 - 이러한 환경오염의 배경에는 공업화 등 산업화 전략과 도시화로 인한 현대화 전략이 큰 영향을 미침
 - 또한, 저가의 노동력을 이용한 제조업위주의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비해 최첨단 기술집약적 산업은 일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열위에 있음

3. 시사점과 대응

- (시사점) 중국의 성장정책 전환은 국내경제에 단기적, 중·장기적으로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을 예상 할 수 있음
 - **단기적** : 수출 감소, 기업 채산성 악화와 차이나머니의 부작용 등 위협요인과 동시에 관광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따른 기회요인도 존재함

1) 中國統計年鑒(2010)년 ‘中央和地方財政主要收入項目(2009)’에서 ‘城市維護建設稅, 房產稅城鎮土地使用稅, 土地增值稅, 耕地占用稅, 契稅’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
 2) 중국은행감독위원회와 상해증권거래소 자료에 따르면, 2010년 은행산업과 자본시장의 규모는 각각 약 95조 위안(14조억 달러, GDP대비 237배)과 23조 위안(약 4조억 달러, GDP대비 57배)으로 분석됨

- **위협요인** : 중국 성장둔화에 따른 대 중국 수출 감소, 지역 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 따른 지역 간 임금의 차등적 적용으로 주로 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국내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3조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의 해외진출이 더욱 확대되면서, 대량의 차이나머니 국내 유입량도 증가하여 통화정책의 탄력성 저하 문제 등 부작용이 우려됨
 - **기회요인** : 소득증대 효과에 기인한 중국 내국인의 국내 여행자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한국 관광산업도 동반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,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성장으로 한국의 기획력을 활용할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보임
- **중·장기적** : 위협요인으로 중국의 차세대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시장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내수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을 겨냥해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와 소비재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
- **위협요인** : 중국의 IT와 친환경산업을 결합한 신 성장산업 발전은 아직까지 유럽, 미국, 일본에 비해 낮은 기술경쟁력을 보이는 한국으로써는 국제시장에서 잠재적 위협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
 - **기회요인** :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내수확대에 따른 중국의 對한국 소비품 및 중간재 수요 확대로 수출증대가 예상되며, 친환경 산업정책과 복지관련 서비스업종의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

< 위협과 기회 요인 >

	단기적	중·장기적
위협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성장둔화로 대중 수출 감소 우려 -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채산성 악화 우려 - 차이나머니의 국내유입 증대로 통화정책의 탄력성 저하 우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 성장 부문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한국과 치열한 시장 경쟁 예상
기회요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득증대에 따른 관광 및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 기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비재 수출증대와 서비스업투자 활성화 기대

출처 : 본 연구원 자료 정리

- (대응방안) 내수확대를 통한 질적 성장 전환에 겨냥해 무역품목 확대, 투자 및 사업 분야의 타깃팅 전략 및 금융상품의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며, 산업에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요
 - 무역품목 확대 : 자본재와 중간재 위주의 수출구조를 소비재로 확대 필요
 -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중국 수출 중 소비재 비중은 2007년 7%에서 2010년(1월-5월) 10%로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보다 확대할 필요성 증대
 - 투자 및 사업 분야의 타깃팅 전략 수립 : 제조업위주의 투자항목을 유망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신개념 콘텐츠 개발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 시도 필요
 - 내수시장의 핵심인 유통시장진출은 지역별 산업특화정책에 맞춰 온라인 쇼핑 분야를 자동차부품 및 타이어, 게임, 제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함
 - 젊은 네티즌의 정보수요를 위한 소셜커머스(Social Commerce), 중국의 노령화에 겨냥한 헬스케어를 응용한 안티에이징(Anti-aging, 항노화)과 친환경 콘셉트 분야의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는 신개념 사업 창출도 중요함
 - 맞춤형 금융상품 설계 : 은행의 소매금융 발전과 사회복지향상에 맞춰 현지 진출 및 맞춤형 금융상품 설계 시급
 - 소비확대와 민생안정 기조로 소매금융의 활성화가 예상되므로 국내은행들의 현지법인 추진과 소비형펀드나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
 - 산업기술 혁신 :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의 자체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 확보
 - 차세대 자원절약 및 친환경분야에서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이나 비전에 열위를 보이므로 경제특구지역을 활용한 신 성장분야 개척 등 경쟁우위요소 발굴 시급
 - 예를 들어, 인천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을 활용해 IT, 의료, 바이오, 물류 등 첨단 신 성장 산업 육성이 필요함

연구위원 한재진 (2072-6225, hzz72@hri.co.kr)